

스리랑카 조계종복지마을 내달착공

고아원·양로원·보건소·사찰 등 10만평 규모 긴급재호구호봉사단·자비나눔기금도 본격화

지진해일성금 20억 넘어

조계종에서 실시한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 돕기 성금이 20억9천여만 원을 돌파(3월 16일 기준)한 가운데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마을'이 4월 착공된다. 상시 재해대응을 위한 '긴급재호구호봉사단'과 대화회 자비나눔 실천사업 재정마련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가칭)'도 본격화 된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에 고아원과 양로원을 포함한 현대식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복지마을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립해 가정 '코리안 부디즘 타운'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복지마을 부지는 완공 후 한국불교자와 원활한 유대를 위해 방문이 용이한 ▲공화-캐디 ▲콜롬보-캐디 ▲캔다-담블라 세 곳 중 한 곳을 선택한다. 마을 건립은 조계종에서 부

담하지만 운영은 양국의 공동인사로 구성된 가칭 한국·스리랑카 문화·사회 복지 재단(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에서 맡는다.

복지마을 규모는 약 5~10만평이다. 이 가운데 1500여평의 건물을 지어 고아 100명, 노인 30명을 수용한다.

복지마을에는 고아원 10채(한 채 당 40명), 양로원 5채(한 채 당 30명), 보건소 1채(50명, 입원실·치료실·사무실), 종합 관리 사무실 1동, 사찰(법당, 설법전, 요사채) 3채, 교육편의 시설 1동, 방문객 숙소 1동, 공공 화장실 2곳, 놀이터 2곳, 운동장 1곳, 내부공원, 작물 재배터 등이 들어선다.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공사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고아원, 양로원, 보건소, 놀이터, 종합 관리사무소가 건립된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공사에서는 종합 교육시설(독서실·컴퓨터실·학술교류센터), 공연, 운동장, 사찰이 마련된다. 복지마을 완공식

은 2006년 11~12월 경 봉행된다.

긴급 재해 구호 봉사단은 조계종 복지재단 소속의 자원봉사단을 주축으로 결성된다. 평시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활동을, 해외재난 발생시에는 현장에 급파돼 재해구호 활동을 한다.

자비나눔 기금은 종단 책임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사회명망가까지 포함하는 20명 내외의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뢰도를 확보한다. 또 '봉축 자비 나눔' 기금모연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축적한 다음 종령 제정을 추진한다. 기금은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의 재난, 기아, 난민 등 극빈소외계층들을 위해 쓰여진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템플스테이 활성화 전망

신규 15사찰 지정...홍보·예산도 늘려

템플스테이 사람이 44개로 늘어나고, 사찰경상비 및 시설개선 지원비가 증액되는 등 템플스테이 사업이 적극 활성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기존 운영사찰 36곳 가운데 7곳이 전통사찰로서의 사적 미달, 운영의지 미흡 등으로 제외되고 신규신청 22곳 가운데 15곳을 새롭게 추가해 최종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했다고 3월 15일 발표했다.

신규로 지정된 15곳은 봉은사, 갑상사, 평택 수도사, 파주 보광사, 공주 영평사, 남원 실상사, 강진 백련사, 장성 백암사, 나주 불회사, 화순 운주사, 보성 대원사, 평창 월정사, 동해 삼화사, 밀양 표충사, 함천 해인사 원담 등

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밖에도 올해 운영사찰의 전문성 제고, 해외 홍보 마케팅 주력, 템플스테이 전문 자문 및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대외협력사업 주력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억에서 올해 10억으로 증액된 경상비를 각 사찰 경상비 및 시설개선 지원비로 적극 활용해 운영사찰의 환경 인력 전문성을 키울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낙산사 통도사 등 11개 지정 운영사찰을 선정, 일반운영사찰과 구분 운영했던 것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운영능력이 뛰어난 사찰을 선정해 차후년도 예산을 지원하고 홍보를 우선해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봉원사문제 9인 대책위 구성

조계종 법안·태고종 법현 스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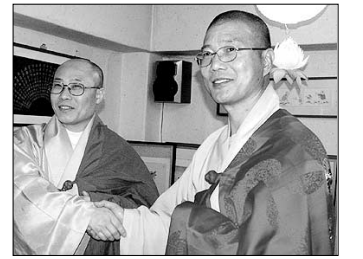
"대화로 해결" 재천명

조계종과 태고종은 3월14일 산중 다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신종봉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9인의 신종 봉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과 태고종측 대표인 법안법현 스님은 "대책위에서 대화를 통해 각종 소송 취하 등 모든 해결방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측은 11일 대책위원회 산하에 토지 공동조사단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계종측 대책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 총무부장 무관, 기획실장 법안, 재무부장 동진, 호법부장(공석) 스님이 중앙총회에서 부의장 원택, 총회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왼쪽)과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이 손을 잡고 있다.

의원 정후 영배 장적 스님, 조계종 봉원사 주지 성국 스님이 임명됐다.

또 태고종측 대책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 부원장 보경 자일 해공, 총무부장 월해, 교무부장 법현, 기획부장 법안, 봉원사 주지 구해, 총회의장 인공, 종권수호위원장 대운 스님이 선임됐다.

김원우 기자

"도덕·역사 필수과목 마땅"

법장 스님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독도 및 일진회 문제와 관련 "학교에서 도덕과 역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3월 17일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예방한 자리에서 "독도 및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해 역사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진회 문제 또한 가정교육이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이 지식 위주로 돼 있어 발생하는 것"이

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를 비롯해 범사회적으로 인간성 회복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도덕과 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면 각급 학교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승려 노후복지 연석회의 제안

조계종 일승회, 선거법 개정도 공론화

조계종 중앙총회 정책모임인 일승회가 제166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당면한 정책 현안과 올해 정책 활동 방향을 3월 16일 밝혔다.

일승회는 정책 현안과 올해 활동 방향으로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총무원-교구본사-중앙총회 연석회의' 제안 ▲중앙총회의원 면책특권과 표결방식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전력 ▲선거공정제 강화 및 선거권 연령(승남)문제 등 선거법 개정 공론화와 합리적인 대안 모색

등을 내놓았다.

일승회는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차 공사가 완료되는 7월 이후로 잡고 있다. 계파를 초월해 중앙총회 의장단, 각 상임분과위원장, 종신스님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구별 재직자에 비례한 중앙총회의원 선출과 관련 일승회는 "전체 중앙총회의원이 1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8차 韓中日 불교대회 10월 불국사서

15일 예비회의서 합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3월 15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교류협회 대표단과 예비회의를 갖고 제8차 한중일 대회를 겸주 불국사 일대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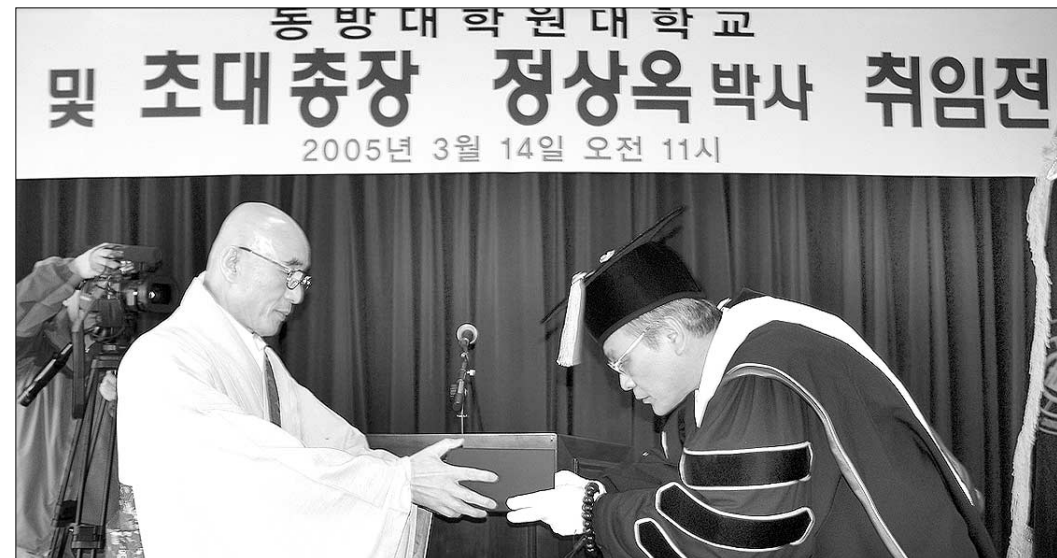
10월 24~26일까지 열리는 제8차 한중일대회는 '인류사회의 발전과 3국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300명, 중국 100명, 일본 100명 등 총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

회에서는 '인류사회 발전과 3국 불교의 역할'에 대한 학술강연회와 각국에서 선정한 자유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중일 대회는 ▲3국 불교유산 전시 ▲3국 불교음악 협연 ▲3국 합창경연 및 시범연주 ▲불교미술대전 ▲불교환경 사진전시회 등을 부대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대표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제4차 한국불교수행 중국체험단을 초청하기로 합의했다.

김원우 기자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이사장 윤산 스님이 정상옥 초대 총장에게 학교 열쇠를 전달하고 있다.

초대총장 취임...첫 입학식

태고종립 동방대학원대학교...210명 등록

태고종립 동방대학원 대학교 제1회 입학식 및 초대 정상옥 총장 취임식이 3월 14일 대학내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 및 총장 취임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은 스님, 조계종 원로 도윤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윤산 스님, 총회의장 인공 스님, 부원장 보경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 김응현 설립대표자겸 초대이사장, 김석진 동방문제진흥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윤산 스님은 치사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입학한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자리아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문화 계승을 통해 21세기 세계화

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옥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학과 전공의 전문화로 전문 학예를 이시대에 맞도록 재조명하고 새로운 체계로 정립해 국가변영에 기여하는 대학원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며 "2006년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미래예측학과 자연치료학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도 동방대학원 대학교에는 석사과정 30여명, 연구과정 27명, 문화교육과정 210명이 등록했다.

글·사진=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중문구 건지동 110-33 대표전화 (02)737-8881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국조동종 총본산 社團法人 韓國佛教曹洞禪林

원효불교대학 공개강좌 안내

본 대학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의 종찰인 원효사가 불교대학 개강준비 일환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본 대학은 부처님의 진리와 중도사상을 근본이념으로 선교경학(禪敎兼學)의 교학체계(敎學體系)와 불교지도자 및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인 오형근교수(철학박사)님을 모시고 공개강좌를 실시함을 알리오니 많은 동참하시어 불법의 진리를 증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교과목**
 - 가) 조동선학 논총(曹洞禪學論叢) - 필자 직강
 - 나) 유식학입문(唯識學入門) - 마음의 체성과 작용을 자세하게 분류 체계화 설명
 - 다) 불교의 윤회관과 영혼 -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영혼설과 업력 윤회의 도리 해설
 - 라) 반야심경 - 대승불교의 공사상 해설
 - 마) 인도불교의 선사상 - 소승선과 대승선(조동선) 사상적 해설 강좌
- 2. 교육기간** : 2005년 4월 7일 ~ 12개월
- 3.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대학강의 기준)
- 4. 교육장사** :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 오형근 명예교수(철학박사)
- 5. 입학자격** : 가) 승려 및 일반불자(성별제한없음) 나)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 6. 입 학 금** : 100,000원(원서료 및 교재비포함)
- 7. 수 강 료** : 50,000원(매월)
- 8. 제출서류** : 본대학 소정의 서류(여권사진 3매)
- 9. 수강신청 마감일** : 2005년 4월 6일
- 10. 특 전** : 가) 본 대학졸업자는 졸업장 및 졸업 기념패 수여 나) 본 대학졸업자는 종단 전교사 자격증 수여
- 11.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호 원효사
원효불교대학 교학처 02)718-6221 / 713-0475

조동선(曹洞禪) 첫 연구서 출간

『曹洞禪學論叢』제1집 조동선학논총

- ◇ 曹洞宗 源流訣 - 五家法統次序譜
釋金堂 (파평산 휴휴암주)
- ◇ 조동종 默照禪의 연구
吳亨根 (동국대 명예교수)
- ◇ 曹洞禪思想의 연구
洪修平 (중국 南京大 교수)
- ◇ 羅末麗初의 曹洞禪
金永斗 (원광대 교수)
- ◇ 중국 조동선과 新羅禪師 - 「동산록」所載의 신라인식을 중심으로
卞麟錫 (전 아주대 교수)
- ◇ 眞如禪寺의 과거와 현재
崔錫煥 (월간 「선문화」 발행인)
- ◇ 현대중국 선종 중흥조 虛雲和尚 行狀
一成 (운거산 진여사 방장)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대표 총무원장 今禪 鶴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삼각산 원효사 전화 02)704-8065, 713-0475 팩스 02)704-8064